

충북도, '강원-충청-호남 축' 주제로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추진

생활체육인 6만명에게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도 홍보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 2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오는 4월 말 열리는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추진상황 보고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회 주제를 '강호축(江湖軸)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호축은 강원, 충청, 호남을 잇는 발전 축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서울, 대구, 부산을 잇는 경부축이 국가 발전의 핵심 동맥으로 기능했다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강원, 충청, 호남을 새로운 국가 균형발전과 성장 동력의 축으로 삼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강호축은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어젠다로서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대륙으로 진출하겠다는 큰 꿈을 담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 생활 체육인들에게 강호축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생활대축전에 온 사람들이 오는 8월 말에 열리는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행사도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신경 쓰고, 체육시설과 숙박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오는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충청북도 일원에서 열리며, 주 경기장은 개회식이 열리는 충주종합운동장이다. ●



강호축의 큰 꿈이 실현됩니다

충북 예타면제사업 6조 6천억원 환영!

- ✓ **충북선 철도 고속화** 1조 5천억원
- ✓ **평택~오송 복복선화** 3조 1천억원
- ✓ **세종~청주 고속도로** 8천억원
- ✓ **제천~영월 고속도로(예타 선정)** 1조 2천억원